

‘대학 최강’ 광주여대 배구부, 새해 첫 훈련 돌입

최성우 감독 “이정효 감독님 보며 이름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러 노력”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훈련뿐 아니라 아이들 미래 설계 함께 고민

광주여자대학교 배구부가 새해 첫 훈련을 시작으로 ‘대학 최강’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 5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는 신입생이 합류한 올해 첫 훈련이 진행됐다.
광주여대 배구부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MBC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에서 대학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필승 원더독스’와 맞대결을 펼쳐 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창단 이후 빠르게 전력을 끌어올린 광주여대는 2년 차에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에서 정상에 오르며 신흥 강호로 떠올랐다.
팀을 이끄는 최성우 감독은 방송 출연에 대해 “대학교 배구팀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창단 이후 꾸준히 결승에 오르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덕에 출연 제안을 받은 것 같다”며 “우승팀 대표로 나서는 만큼 대학 배구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여대 배구부의 운영은 ‘학생선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 감독은 “(선수들은)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다. 학년별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게 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며 “학생들의 프로·실업 도전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단단한 기반이 있으면 다시 다른 길에 도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단 첫째 대학 최초로 이재은이 AI페퍼스에 지명돼 프로 무대를 밟았고, 최근에는 4학년의 손은진이 실업팀에 입단하는 성과도 나왔다.
최 감독은 어린 시절 배구 선수로 뛰며 프로 진출

을 꿈꿨지만, 조선대 재학 시절까지 코트를 지킨 뒤 ‘지도자’라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최 감독은 “내가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다”며 “제자들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시대 흐름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길을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아이들의 미래를 더 신경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로 진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밝혔다.
최 감독은 “고등학교에서 드래프트를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동안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는 제한은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막고, 배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때 기회를 얻지 못해도 대학·실업에서 다시 육성해 프로 무대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생 선수들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리그와 구단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이 더 많이 뛸 수 있는 ‘무대 확장’도 바랐다.
최 감독은 “프로 무대가 있고 여자 실업팀도 있지만,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2·3군 환경이 더 만들어져 많은 선수가 시합을 뛸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이날 훈련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선수들의 밝은 표정과 기합이었다.
이에 최 감독은 좋은 팀의 조건으로 ‘동료’와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나 혼자만 아니라 동료가 있다는 마음가짐



광주여대 배구부가 지난 5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올해 첫 훈련을 가졌다.

이 팀을 밝게 한다”며 “배구가 팀 스포츠인 만큼 선수 개인의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동료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또 “훈련 시작 전 아침에 주먹을 치며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본다. 표정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먼저 마음으로 이해하고 훈련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를 많이 해야 극복할 수 있다”며 “훈련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섬세하

게 다가가 신뢰를 쌓는 것이 팀 운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 감독은 자신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광주FC 돌풍을 만들었던 이정효 전 감독(현 수원삼성)을 언급했다.
그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증명해 내며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느꼈다”며 “그분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아마추어 지도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나도 내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싶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는 분명했다.
최 감독은 “앞으로 열릴 모든 대회에서 전국 제패, 3관왕·4관왕이 목표”라며 “107회 제주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확보하는 것이 큰 목표다. 제자들을 믿고, 함께하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한일 탁구 간판 격돌…신유빈, WTT 첫 대회서 하리모토와 경기

3연패 탈출 도전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대한항공)이 올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 첫 대회에서 한일 애시스 대결을 벌이게 됐다.
신유빈은 5일(이하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WTT 챔피언스 도하 2026 조 추첨 결과, 여자 단식 1회전(32강)에서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 미와와 맞붙게 됐다.
7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챔피언스 도하는 WTT 시리즈 대회 중 그랜드 스매시 다음으로 높은 상위급 대회로, 남녀 단식에 세계 정상급의 32명만 초청됐다. 상금은 총 50만달러(약 7억2000만원)가 걸려 있다.
세계랭킹 12위인 신유빈은 6위 하리모토와 대결에서 부진을 겪었다.

신유빈은 2023년 8월 WTT 리마 대회 준결승에서 하리모토를 3-2로 꺾은 적이 있다.
하지만 작년 WTT 시리즈에선 3월 쉐나이 4강에서 0-3으로 졌다. 이어 8월 챔피언스 요코하마 32강 2-3 패배에 이어 11월 챔피언스 프랑크푸르트 4강에서도 2-4로 패했다.
신유빈으로선 2026년 새해 첫 대회에서 3연패 탈출에 도전하는 것이다.
작년 마지막 대회였던 파이널스 홍콩에서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혼합복식 우승을 합작했던 만큼 신유빈이 이번 챔피언스 도하 단식에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위 쑹잉사가 파이널스 홍콩 때 발목을 다쳐 8주 진단을 받아 결장한 가운데 파이널스 홍콩 단식 챔피언인 세계 2위 왕만위를 비롯해 3위 전상통, 4위 콰이만, 5위 왕이디(이

상 중국)가 모두 출전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신유빈을 비롯해 16위 주천희(삼성생명), 28위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 31위 이은혜(대한항공)가 초청받았다. 작년 파이널스 홍콩 여자 단식 8강에 올랐던 주천희는 세계 32위 류양지(호주)와 32강 대결을 벌인다.
한국 남자 ‘만형’에서 17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친정팀 삼성생명의 여자팀 코치로 변신한 이상수 코치가 주천희의 벤치에 앉는다.
남자 단식에는 한국의 간판인 세계 18위 장우진(세아)과 15위 안재현, 23위 오준성(이상 한국거래소)이 참가한다.
장우진은 세계 9위 알렉시스 르브랭(프랑스)과 16강 진출을 다투고, 안재현은 40위 주치하오(중국), 오준성은 10위 당치우(독일)와 각각 32강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동계훈련 최적지’ 전남서 육상 기대주들 구슬땀

중·장거리, 도약 종목 등 훈련

전남에서 육상 기대주들의 질주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
지난 5일부터 2026년 육상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전남을 찾아 동계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중·장거리 선수단 37명은 21일까지 진도공설운동장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오는 12일에는 도약 종목 38명이 해남을 찾아 우슬 경기장 등에서 2월 1일까지 동계 캠프를 소화한다.
온화한 기후와 풍성한 먹거리가 돋보이는 전남은 앞서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면서 육상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선수단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체육시설 운영 협력은 물론 숙박, 의료, 안전 지

원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수에게겐 동반자, 도민에게겐 희망을 희망·감동 전하는 체육회 만들 것”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2026년 ‘참여와 포용’ 중심의 장애인체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도장애인 체육회 박정현 상임부회장은 “선수에게는 최고의 동반자, 도민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전남장애인체육회”라는 비전 실현을 강조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신년사에서 “2026년을 도민과 함께 희망을 키우고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성과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7위(역대 원정 최고 성적) 달성과 함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 획득을 꼽았다.
이어 올해 핵심 목표로 ‘참여와 포용이 보장되는 장애인체육 환경 조성’을 언급했다. 이에 맞춰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확립해 선수 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22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저변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도 추진한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 영역을 넘어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군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장애인 특성과 연령에 맞춘 프로그램을 확대 생활 속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전남장애인체육회의 핵심 가치인 ‘참여·포용·상생’ 정신을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도민에게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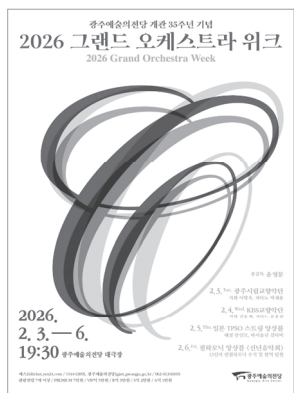
문화
산책



광주시립교향악단 402회 정기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만남’
일시 : 2026-01-1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